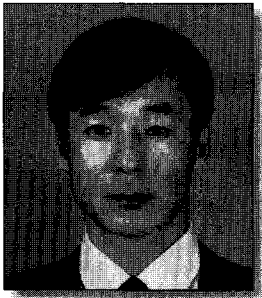


다양한 연구, 농가에 보탬되는 한해 만들터

김상우/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사



김 상 우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사

임오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연초가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거창한 계획과 설계를 해 보곤 할 것이다. 필자 역시 사슴을 연구하는 한사람으로서 올해에는 어떤 연구를 해서 연말이 되면 우리 양록 농가에 무엇을 전해줄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 결과는 분명 흘린땀만큼의 결과가 있으리란 것을 확신하며 새해를 설계해본다.

지난해 우리 양록산업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았었다. 연구소에서는 올해에도 연구의 기본방향을 양질의 녹용생산 기술개발에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농가가 보유한 일부사슴들의 낙각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만 있다면 절각의 분산으로 인한 고객확보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확신하여 올해에도 작년의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여 사슴뿔의 낙각시기 조절기술을 확립할 생각이다.

2001년도의 연구성적으로 보면 엘크와 꽃사슴의 경우 사슴뿔의 낙각시기는 내분비 조절에 의하여 40일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 또한 녹용의 각질화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기전을 연구하여 각질화를 예방하는 기술도 개발할 생각이다. 이 연구는 단기간에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분명 2~3년 안에는 각질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가을철만 되면 자발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수컷의 체중감소를 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듬해 보다 많은 녹용을 생산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 연구 또한 우리의 연구 대상중의 하나다.

가을철만 되면 난폭해지고 사나워져서



▲ 축기원에서 실험용 사슴과 포즈를 취한 김상우 연구사

사슴장을 부수고 울음소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겠다. 또한 2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국내보유 우수사슴들의 능력정보도 수집, 평가하여 사슴농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종족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녹용의 생산량이 많은 수컷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자육을 확보하여 현재 핵군을 조성 중에 있다. 현재는 발육 및 녹용의 생산량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사슴의 조사료원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가능성이 있는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녹용에서도 급여한 기능성 물질이 축적되어 기능성 녹용을 생산할 수 있는지도 연구과제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외국산 녹용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한가지는 외국의

녹용보다 우수해야 한다. 그러나 국산녹용의 차별화 연구는 연구소 한곳에서 만의 연구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육농가 여러분들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육방법이 있다면 연구소와 상의하고 함께 고민하여 연구과제로 채택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농가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양육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연말에 가서 이루지 못할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난해를 돌아보고 반성하여 올 연말에는 우리 양육농가에서 실제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축산기술연구소의 2002년도 사슴연구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했다.

양육농가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국의**